연기, 인간 존재에 대한 분석과 성찰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 편역)

22. 분석과 직관 ㊤

불교는 분별의 가르침

능히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상층계급 출신의 지성이 우수한 청년들로 한정되어 있었다. 거기에 근본불교는 저절로 일종의 계급성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거기에,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자기비판의 중대한 과제가 있었다.

그러면 붓다의 가르침이 우수한 청년들을 벗어나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대체로 붓다의 가르침이 어떠한 가르침이었기에 그러하였을까.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연원(淵源)을 더듬어 보자.

이점에 관해서 먼저 상기(想起)해야 될 점은 이 가르침이 본래 '분별(分別)'의 가르침이었다는 점이다. 오랜 대승불교의 영향 밑에서 불교란 것을 생각하여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르침이 원래 '분별'의 가르침이었다는 지적은 좀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래된 불교인들은 이 가르침의 성격을 규정하여 '불교는 분별의 가르침이다'라는 명제(命題)를 앞세우고 있었다. 그 명제는 석존의 가르침을 조금만 검토(檢討)해보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붓다가 이 세계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 지적(知的)인 활동은 줄여서 말하면, 관찰과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투철한 관찰로써 여실(如實)히 지견(知見)하는 것이 그 점이었다. 주의 깊은 분석으로 존재를 여러 관점으로 분별하는 것이었다. 특히 인간의 관찰과 분석에 있어서의 붓다의 그것은 매우 정밀하고 섬세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오래된 불교의 술어에 '오온(五蘊)'이란 말이 있다. 또 인간은 '오온가화합(五蘊假和合)'의 존재라고도 말한다. 그것도 붓다가 시도한 인간분석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온(蘊 · skhandha)이란 요소 또는 부분이란 뜻을 가진 말이다.

인간 존재를 몇 가지의 요소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방법을 이 용어 자체가 잘 표시하고 있다. 그 분석의 방법은 물질적 요소로서 색(色) 정신적 요소로서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네 가지 요소를 말한다. 합하여 다섯 개의 부분 즉 오온의 외에는 무언가 늘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영혼이니 아(我)니 하는 것을 조정(措定)하지 않으며, 다만 다섯 가지의 부분의 유동적(流動的)인 결합과 추이(推移)에 있어서 인간 존재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것이 오온가화합이란 것이다.

또 예를 들면 오래된 술어에 '육처(六處)'라는 것도 붓다에 의해서 시도된 인간분석 방법의 하나였다. 그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그 대상에 관련하는 관련 방법을 눈 · 귀 · 코 · 혀 · 몸 · 뜻의 여섯 가지 감관(感官)에 의해서 생각하였다. 또 이 여섯 개의 감관에 따라서, 인식의 대상을 색(色) · 성(聲) · 향(香) · 미(味) · 촉(觸) · 법(法)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그리고 소위 존재란 이러한 여섯 개의 감관과 그 대상과의 결합에 있어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이외에는 인간에게 있어 어떠한 존재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 분석의 방법은 얼핏 보기에는 퍽 소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존재인식의 사고방식은 근대의 인식론과 같은 분석적(分析的)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잘 알려진 십이연기(十二緣起)도 붓다에 의해서 시도된 하나의 인간분석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경전에 의하면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대각(大覺)을 성취한 후에 여전히 나무 밑에서 머물면서 이 무명(無明)에서 생사(生死)에 이르는 12항목의 연기(緣起) 즉 조건의 상관관계를 순(順)으로 또는 역(逆)으로 여러 번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기의 계열이 설명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에 관해서는 예부터 여러 가지의 이론(異論)이 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이르는 윤회전생(輪廻轉生)의 연속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예부터 널리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은 붓다가 그러한 것을 문제로 삼았을 리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붓다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현실의 인간이었다. 이 현실적 인간의 모습은 고(苦)이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苦)의 인간모습이 있는 것일까. 이 고(苦)의 인간모습이 있는 것일까. 이 고(苦)의 인간존재 '생기(生起)의 조건'(그것이 연기란 것이다)을 탐구하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배열한 것이 저 열두 항목의 연기였었다. 즉 십이연기(十二緣起)는 인간의 괴로운 실존(實存)의 생기(生起) 조건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 존재의 조건을 찾다

분석한다는 것은 다만 대상을 나누며 따지는 것만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석이란 것을 정의(定義)하여, 그것은 "주어진 것이 혼돈(混沌)한 전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정(限定)하며 규정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더 단적으로 표현하면, 문제를 단순화하는 길이며 또,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대상은 언제나 '혼돈한 전체'이다. 그것을 주목하면서 관찰한다. 관찰하면서 여러 요소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본질적인 것을 추상(抽象)하며 우연적(偶然的)인 것을 사상(捨象)한다. 그리하여 본질적인 여러 요소들 사이에 있는 관계를 선명하게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대탑. 부처님은 끊임없는 관찰과 분석을 통해 깨달음을 이뤘고, 이는 12연기 등의 가르침으로 나타났다.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법(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붓다가 깨달은 법은 그러한 법이었다. 어떤 사물이 있다는 것은 그 생기(生起)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생기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연기(緣起)라는 것이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에 '오온가화합(五蘊假和合)'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겨났다. 또 인간이 그 외계(外界)와 상관하려면 어떠한 조건으로서 하여야 하는가. 거기에 '육처(六處)'라는 생각이 세워진 것이다. 혹은 또 인간이 지금 있는 것과 같은 고(苦)의 상태에 있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일까.

이 조건이 추구되었을 때 그것이 무명(無明)에서 노사(老死)에 이르는 순열(順列)의 십이연기(緣起)가 되었다. 다시 또 그러한 고의 상태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없애면 좋을까. 그 조건이 추구되었을 때 그것이 생사에서 무명에 이르는 역(逆)으로써의 십이연기가 된 것이다.

옛 경전에는 자주 붓다의 이러한 사유(思惟)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는 언제나 먼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노사(老死)가 있으며 무엇에 의해서 노사(老死)가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다고 한다. 또 계속해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노사가(老死)가 없으며 무엇의 멸(滅)에 의해서 노사(老死)의 멸(滅)은 있는 것일까"라고 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즉 인간 존재의 조건을 탐구하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관찰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선문답에 대해

선문답을 설명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커피를 자주 마시고 끼니마다 김치를 만나게 된다. 커피 맛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김치 맛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커피를 스스로 마셔 보게 하고, 김치를 스스로 먹어 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언어와 문자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물맛을 물어 올 경우 대답 대신, 그 물을 물은 사람에게 주어 스스로 물맛을 알게 하라(如人飮水冷暖自知)는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선불교(禪佛敎)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어록(禪語錄) 또한 격외(格外)의 깊은 도리(道理)를 함축된 언어로 표현, 도반끼리, 스승과 제자끼리 비밀스럽게 주고받았던 것이다. 팔만장경의 대의(大意)를 묻는 질문에 '뜰 앞의 잣나무'와 '마른 똥 막대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쯤에서 내가 직접 나눈 선문답을 소개해 옮겨 보겠다, 선문답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하루는 사자암의 내 처소에 해인사의 구참납자인 스님이 찾아왔다. 그 스님

지극한 도리, 격외의 언어로 나누니 이 자리 떠난 극락 · 지옥도 없다

의 세속 나이는 70세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다. 그 스님이 내게 물었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할 경우 어느 곳에 이르게 됩니까?" 하여 내가 대답했다. "날마다 좋은 곳(日日是好處)이지요."

그 뒤, 해인사에서 건장한 체격의 중년쯤 돼 보이는 스님 둘이서 찾아왔다. 그들과 나눈 대화다. "사자암, 사자암해서 찾아왔더니 사자(獅子)는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합니다."

뜰 안의 개가 그들을 보고 짖고 있었다. 하여 나는 말하였다. "눈(眼)은 없고 귀만 달라 붙어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대뜸 목소리를 높이며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자(獅子)를 보여 주십시오."

나는 매우 큰 소리로 사자처럼 포효(咆哮)했다. "악!"

그 중 한 스님이 내게 물었다. "백제무왕은 용화세계에 출현할 미륵불을 기다리며 미륵사를 창건했다는데, 스님이 보시기엔 언제쯤 미륵불이 출현할까요?" 하여 내가 대답했다.

"이르는 곳마다 용화세계요, 만나는 사람마다 미륵불인데, 스님은 왜 용화세계의 미륵불만 찾고 있는가?"

상락아정(常樂我淨)에 대해

〈열반경〉에는 열반의 4덕(四德)으로,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열반(涅槃)을 성취하면 상(常), 락(樂), 아(我), 정(淨)을 누린다고만 명기 되어 있다.

열반은 불교 수행의 최고의 경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열반락(涅槃樂)인 상락아정은 무슨 의미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불교에는 삼법인(三法印)이 있다. 세 가지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뜻으로, 도장 인(印)까지 끌어들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가 제행무상(諸行無常)으로, 일체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화해 항상함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법무아(諸法無我)로, 그 어디에도, 그 무엇에도, 나라고 주장할 만한 영원한 주체로서의 나(我)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일체개고(一切皆苦)로, 삶 그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요, 생존 법칙에 있어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 세 가지 세계관은 불교의 인생관일 수 있는 것이다. 삼법인(三法印)은 이름 그대로 세 가지의 변할 수 없는 진리인 셈이다. 그러나 열반을 성취하게 되면 누리는 열반의 4덕이 있으니 상락아정(常樂我淨)이 바로 그것이다. 간략히 설명하겠다.

열반에 이르게 되면 제행무상(諸行無常)이 아니라, 제행(諸行)은 유상(有常)인 것이다. 일체개고(一切皆苦)가 아니라 일체(一切)가 개락(皆樂)이 되는 것이다. 제법무아(諸法無我)에 있어서도, 제법(諸法),무아(無我)가 아닌 유아(有我)인 것이다. 끝으로 사바예토(娑婆穢土)가 아니라, 청정정토(淸淨淨土)가 되는 것이다.

이 자리를 떠나 따로 극락이 없고, 이 자리를 떠나 따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없는 것이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움직이는 것은 모두 다 아름다운 것이다. 모두가 이웃이요 형제이며 이르는 곳마저도 마음 편한 극락이 되는 것이다. 변두리가 없는 중앙 그대로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것이다. 삼법인(三法印)은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만나 천지개벽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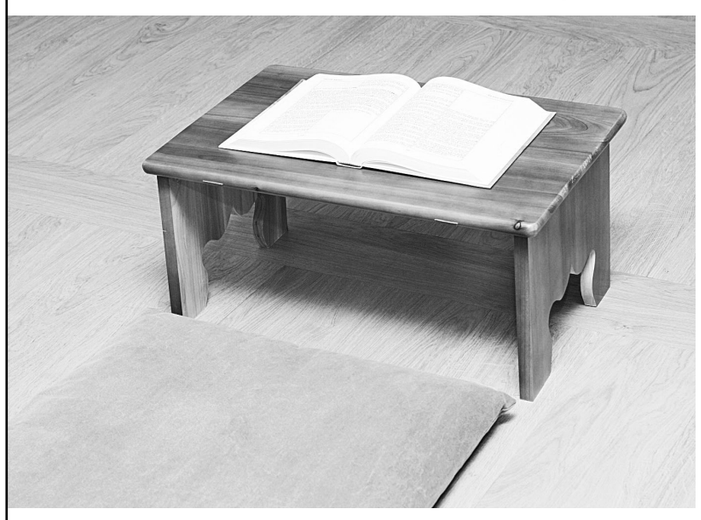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